

제 목 : 2024년 4/4분기 전남 서남부지역 경제동향

□ 한국은행 목포본부(본부장 김태정)는 2024년 4/4분기중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기업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경제동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제조업은 조선업 업황 호조에 힘입어 높은 수준의 생산이 지속되었으며, 서비스업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 제조업은 주요 조선업체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생산이 계속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등 해외기업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생산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규모별로 체감경기가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 서비스업은 높은 물가수준, 내수부진,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업황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올해 전남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의 증가세가 주춤하고 관광 소비 또한 감소하면서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p. (참고 1) 최근 전남지역 관광업 동향 및 발전과제'를 참조하기 바란다.

□ 2024년 10~11월중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1.3% 상승하며 지난 3/4분기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상반기 +3.2%, 3/4분기 +2.2%).

□ 향후 전남 서남부지역 경기는 제조업이 조선업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지속하겠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회복 모멘텀이 약화된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은 추가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2024년 4/4분기 전남 서남부지역 경제동향

문의처: 한국은행 목포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안중섭, 조사역 김민수
Tel: (061)241-1122 Fax: (061)242-1189 E-mail: mokpo@bok.or.kr

한국은행 목포본부의 보도자료는 홈페이지(<http://www.bok.or.kr/mokpo>)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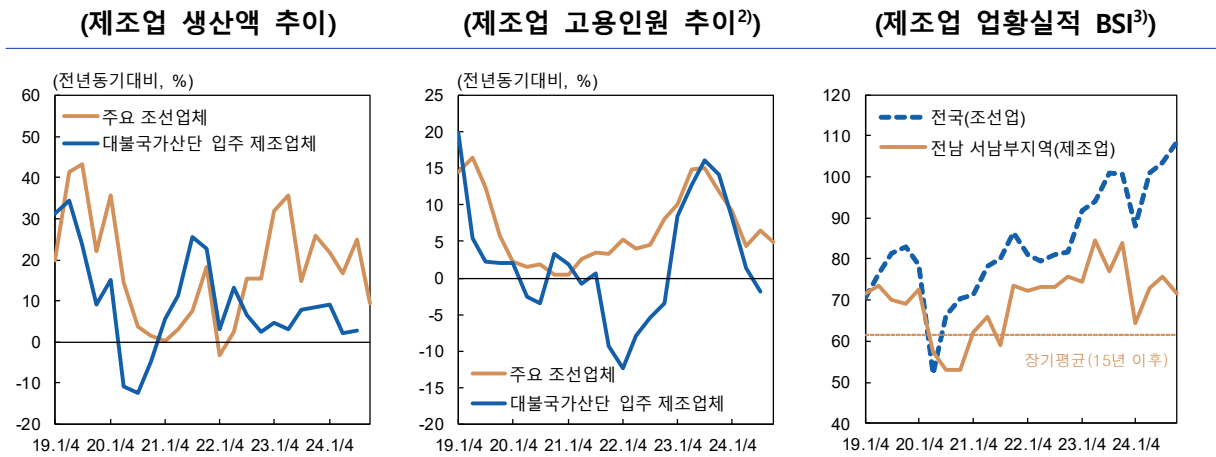
(붙임)

2024년 4/4분기 전남 서남부지역 경제동향¹⁾

1. 생산

1. 제조업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생산이 지속되었으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었다. 2024년 10~11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주요 조선업체의 생산액(경상)은 전년동기대비 9.3% 증가하였다. 높은 수준의 생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이후 수주한 고부가가치 선박의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생산액이 늘어나고 있으나, 증가율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²⁾ 같은 기간 고용인원은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하였는데, 고용인원 증가율이 하락한 데는 주요 조선업체가 양적측면에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³⁾ 한편 지역경제 모니터링 결과 대불국가산업단지 입주 제조업체의 업황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4년 3/4분기중 대불국가산업단지 소재 제조업체의 생산액은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하였으며 2024년 3/4분기말 고용인원은 전년동기말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러한 흐름이 4/4분기에도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2024년 10~11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제조업 업황실적 BSI는 지난 3/4분기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그림 1. 전남 서남부지역 제조업 생산 및 고용 동향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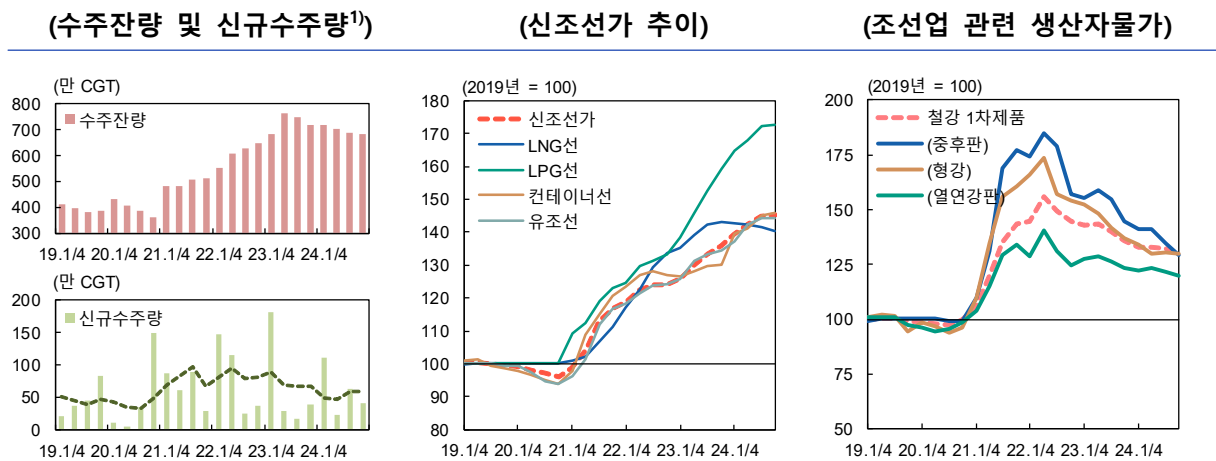
주: 1) 2024년 4/4분기 수치는 10~11월 기준
 2) 주요 조선업체는 분기중 평균 고용인원, 대불국가산업단지 입주 제조업체는 분기말 고용인원 기준
 3) 분기중 월별 수치를 평균한 값을 활용(2024년 4/4분기는 10~11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주요 조선업체

1) 본 자료는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 2024년 11월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동향을 서술하였다.
 2) 주요 조선업체의 생산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24.1/4분기 +21.9% → 2/4분기 +16.7% → 3/4분기 +25.0% → 10~11월 +9.3%
 3)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주요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채용 등을 통해 양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들의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지만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향후 조선업은 업황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선가 지속, 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수익성 또한 개선흐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주요 조선업체는 고부가가치 선박의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매출, 영업이익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 조선업체들은 향후 몇 년 동안의 생산물량을 확보한 상황이며, 높은 협상력을 바탕으로 선별 수주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4) 이에 따라 향후 수주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5) 신조선가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수익성도 개선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측면에서도 철강제품 등 주요 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력수급 여건을 살펴 보면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주요 조선업체의 향후 업황 관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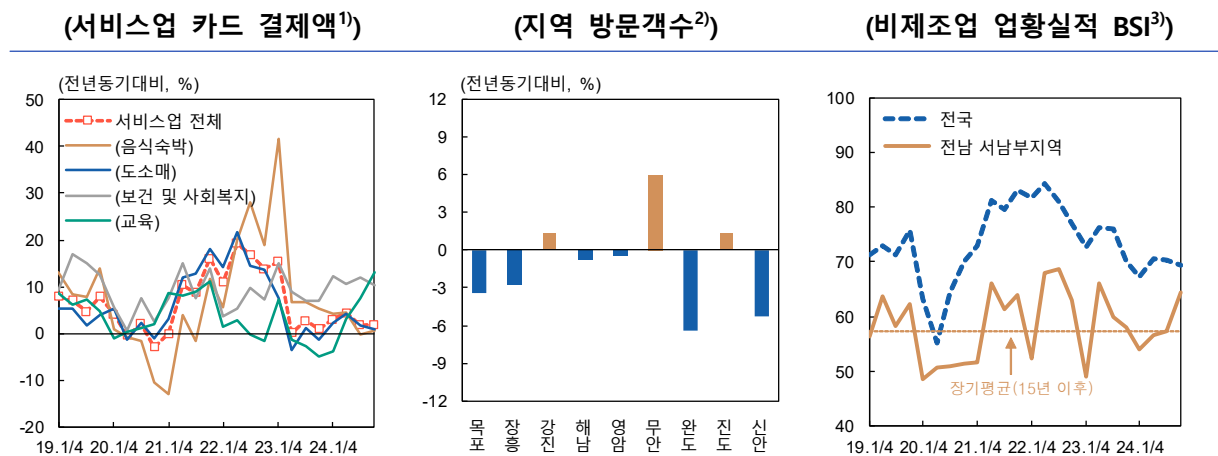
주: 1) 점선은 4분기 이동평균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Clarksons Research

3. 한편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조선업 업황호조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부족, 해외 기업과의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업황개선이 제한적인 모습이다. 지역경제 모니터링 결과 중국 등 해외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소 제조업체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충분한 생산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하청물량이 감소하면서 향후 업황개선에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요 조선업체를 중심으로 제조업의 전반적인 업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규모별로 체감하는 업황은 차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미 대선 결과 앞으로 미국의 LNG 수출이 확대되는 경우 LNG선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남 서남부지역 조선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한편 지역경제 모니터링 결과 중국 등 해외 조선업체의 공격적인 수주 등으로 내년 이후 신규수주 실적은 올해 실적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6) 최근 대불국가산업단지 소재 제조업체의 경우 중국 등 해외업체와의 경쟁 등으로 선박의장품, 선박블록 생산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생산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2024년 10~11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서비스업체의 카드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하였으나(2/4분기 +4.4%, 3/4분기 +1.8%), 주력 업종인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카드 매출액 증가율은 각각 0.5%, 0.9%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높은 물가수준, 고금리, 내수부진 등의 영향으로 관광객이 줄어들고 관광 소비 또한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7) 아울러 고금리로 인한 이자상환 부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폐업을 고려하는 업체가 지난 3/4분기 대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2024년 10~11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비제조업 업황실적 BSI는 지난 3/4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8)

그림 3. 전남 서남부지역 서비스업 생산동향



주: 1)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서비스업체에서 신한, 하나, NH농협카드의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된 금액 기준
 2) 2024년 10~11월중 외부방문객수 기준(이동통신 데이터를 이용해 한국관광공사 추정)
 3) 분기중 월별 수치를 평균한 값을 활용(2024년 4/4분기는 10~11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신한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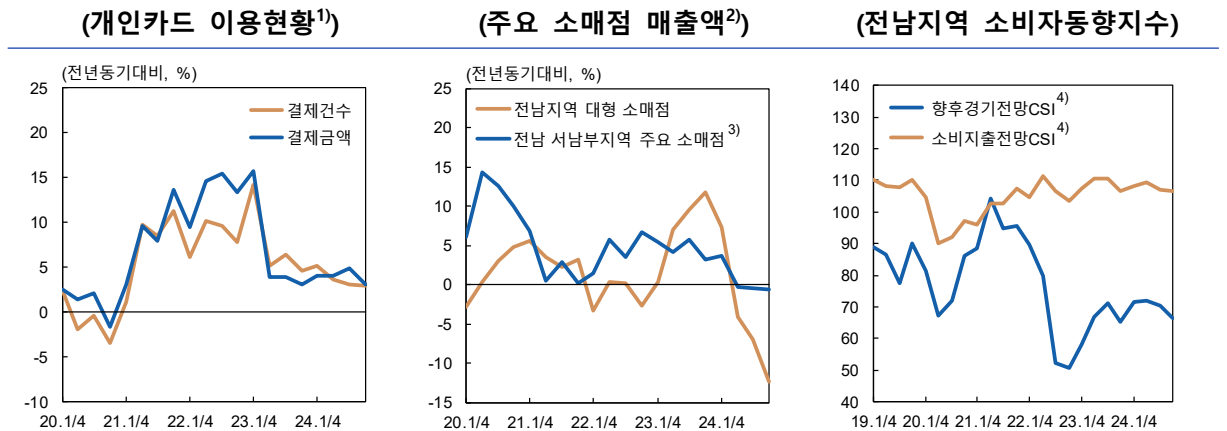
5. 향후 서비스업 업황은 회복 모멘텀이 약화된 가운데 높은 수준의 하방리스크가 상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업황개선, 물가안정세 등은 가계의 실질소득 개선에 기여하면서 서비스업 업황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은 추가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또한 해외여행 확대에 따른 관광객 감소, 온라인 소비 증가에 따른 오프라인 채널 위축9), 자영업자의 채무부담 등도 향후 서비스업 업황 개선을 구조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7) 2024년 10~11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관광소비는 전년동기대비 7.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자료: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8) 비제조업 업황실적 BSI는 서비스업 이외에도 건설업 등 여타 업종의 업황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9) 지역경제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상거래 확대는 지역 소재 오프라인 도소매업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오프라인 소매점 간 경쟁심화로 수익성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수 요

6. 소비는 제조업 업황호조, 물가상승률 둔화 등에 힘입어 소득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10~11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개인카드 사용금액은 전년동기대비 3.1% 증가¹⁰⁾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증가율은 1.8%(10~11월중 전남지역 CPI상승률 1.3% 적용)로 분석되었다. 같은 기간 주요 소매점 매출액(경상)은 전년동기대비 0.6% 감소하였다. 지역경제 모니터링 결과 대형소매점의 경우 고객 수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객단가가 낮아지면서 전체 매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¹¹⁾ 향후 소비는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가능성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전남 서남부지역 소비동향 및 소비지출 관련 심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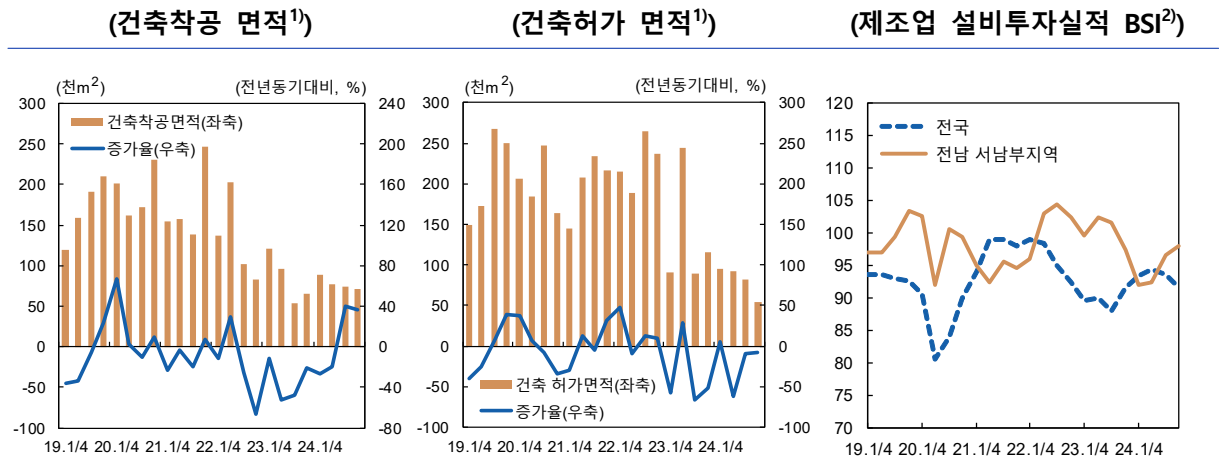
주: 1) 전남 서남부지역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개인이 신한, 하나, NH농협카드의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기준
 2) 2024년 4/4분기는 전남지역 대형 소매점의 경우 10월, 전남 서남부지역 주요 소매점은 10~11월 기준
 3) 대형마트 이외에도 슈퍼마켓 등 소규모 소매점을 포함
 4)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으로 2024년 11월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간중 평균수치를 활용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신한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주요 소매점

7. 건설투자는 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나, 부진 정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10월중 건축 착공면적은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하였으며 허가면적은 7.5% 감소하였다. 다만 건축 착공면적의 수준은 높지 않은 모습이다. 인건비, 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¹²⁾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업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익성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 한편, 부동산 PF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일부 사업은 공사진행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모습이다.¹³⁾ 향후 건설투자는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년 이후 점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10) 전남 서남부지역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개인이 신한, 하나, NH농협카드의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기준
 11) 경기적 요인 이외에도 온라인상거래 확대 등의 요인 또한 오프라인 소매점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2) 건설공사비지수(2020년=100): 21.12월 117.37 → 22.12월 125.33 → 23.12월 128.78 → 24.10월 130.32
 13) 지역경제 모니터링 결과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일부 건설사가 자금조달 어려움, 높은 부지 낙찰가격에 따른 주택 분양가 상승,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8. 설비투자는 전년동기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업은 주요 조선업체를 중심으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업황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설비투자가 다소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⁴⁾ 2024년 10~11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제조업 설비투자실적 BSI는 지난 3/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기준치(100)를 소폭 하회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내수부진 등에 따른 업황 불확실성,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설비투자 회복이 다소 더딘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설비투자는 주요 조선업체를 중심으로 노후설비 교체 등을 위해 계획된 투자가 지속되겠으나 증가율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전남 서남부지역 투자활동(건설 및 설비) 현황



주: 1) 기간중 평균 수치 기준(2024년 4/4분기 증가율은 10월 기준)
 2) 분기중 월별 수치를 평균한 값을 활용(2024년 4/4분기는 10~11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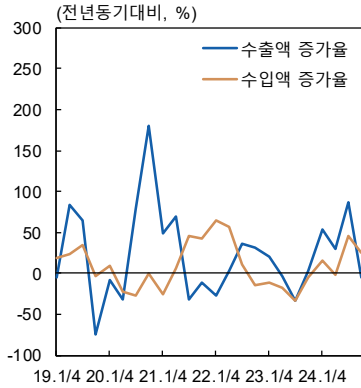
3. 수출입

9. 수출액은 선박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다. 2024년 10~11월중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7% 감소하였으나, 이는 지난 몇 년간 조선업 업황이 개선흐름을 보이면서 전년 같은 기간 선박 관련 수출액이 컸던 것에 기인한다. 선박 이외 품목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1.7% 증가하였다. 향후 몇 년간 주요 조선업체의 선박인도 물량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액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별 업체의 수출 계획에 따라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수입액은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25.4% 늘어났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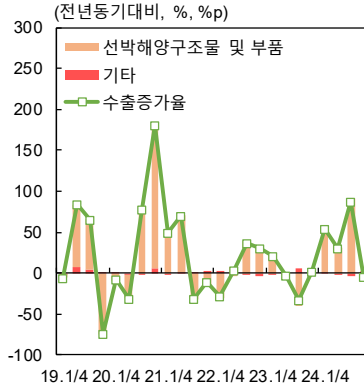
14) 지역경제 모니터링 결과 대불국가산업단지 입주 제조업체의 경우 생산물량 부족 등의 이유로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가 다소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5) 2024년 10~11월중 주요 품목의 수입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철강금속제품 +72.4%, 기계류 +20.2%, 전자전기제품 +64.2%

그림 6. 전남 서남부지역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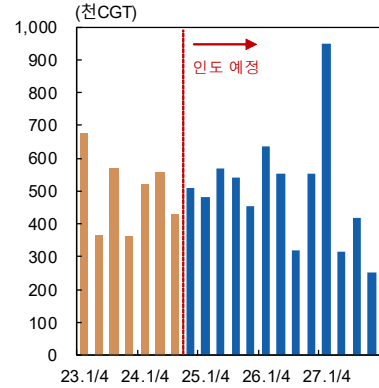
(수출입 추이)



(수출액에 대한 품목별 기여도)



(주요 조선업체 선박인도 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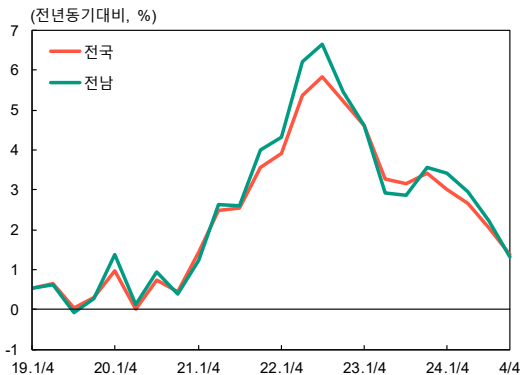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Clarksons Research

4. 물가 및 부동산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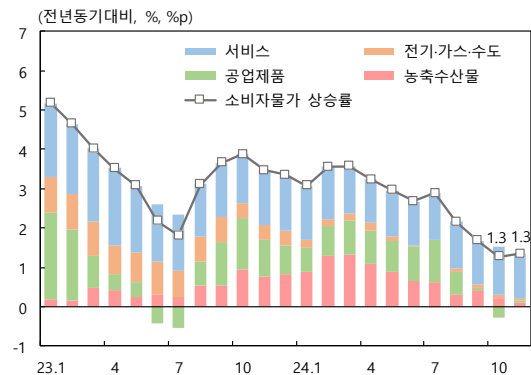
10. 2024년 10~11월중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1.3%로 지난 3/4분기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상반기 +3.2%, 3/4분기 +2.2%). 여기에는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가격상승률이 낮아진 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업제품 가격상승률이 낮아진 데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하락한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16) 내년 이후 전남지역 소비자물가는 높은 수준의 원/달러 환율, 공공요금 인상압력 등이 상방요인으로, 국제유가 하락은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전국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2%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17)

그림 7. 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¹⁾)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대한 품목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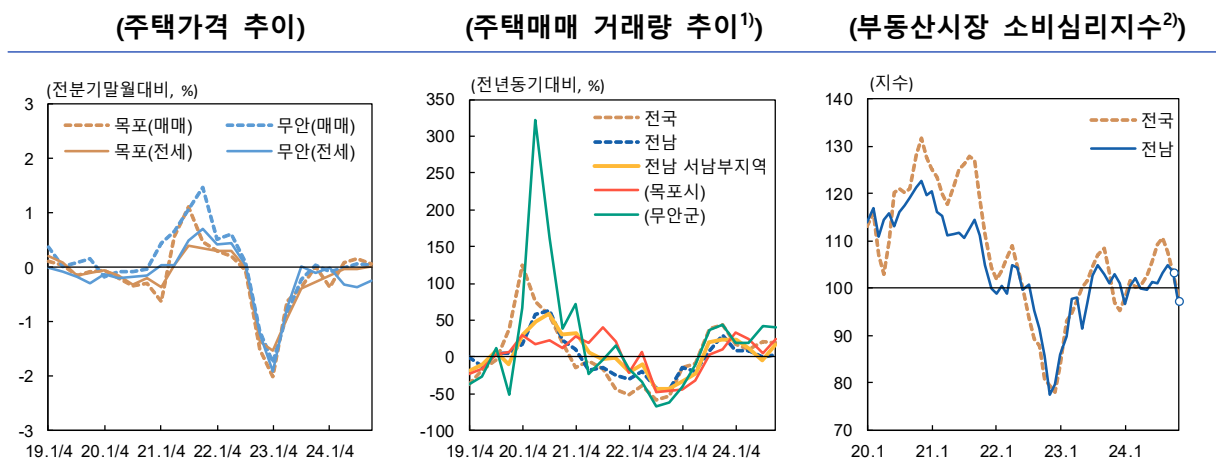
주: 1) 2024년 4/4분기는 10~11월 기준
 자료: 통계청, 자체 계산

16)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대한 석유류의 기여도: 24.10월 -0.68%p → 24.11월 -0.40%p

17) 2024년 11월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중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9%로 전망된다.

11. 2024년 11월중 주택 매매가격은 목포시, 무안군 모두 전분기말월대비 소폭 상승하였다(목포 +0.06%, 무안 +0.04%). 전세가격은 목포시가 소폭 상승하였지만 무안군은 하락하였다(목포 +0.01%, 무안 -0.23%). 10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16.9% 증가하였다. 전남지역 부동산시장(주택, 토지) 소비심리지수는 보합국면을 유지하였으나 전분기말월 이후 하락한 모습이다. 향후 전남 서남부지역 주택시장은 금리 하락 기대에 따른 심리회복 등 상방리스크와 함께 부동산 PF 관련 불확실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에 따른 대출규제 등의 하방리스크가 혼재하면서 높은 불확실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 전남 서남부지역 주택시장 동향



주: 1) 2024년 4/4분기는 10월 기준

2) 0~200의 값으로 표현되며,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지수가 95~114의 값을 가지면 보합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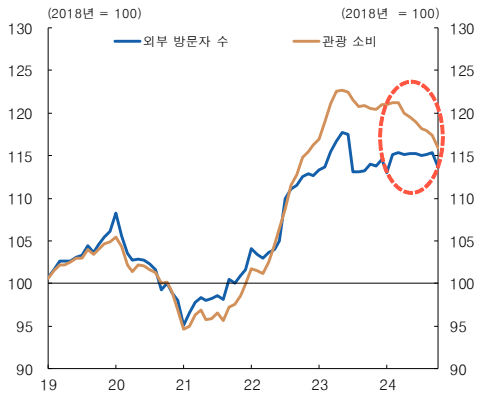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최근 전남지역 관광업 동향 및 발전과제

본 자료는 한국은행 목포본부 안중섭 과장이 작성하여 「한국은행 지역경제 보고서」(2024.12)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지역은 풍부한 생태·자연환경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전남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2022년 이후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그간 관광업 업황 개선은 음식, 숙박 등 관광 관련 업종 전반에 파급되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올해 들어 전남지역을 방문한 외부 관광객의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관광 소비 또한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전남지역 외부 관광객 수 및 관광 소비 추이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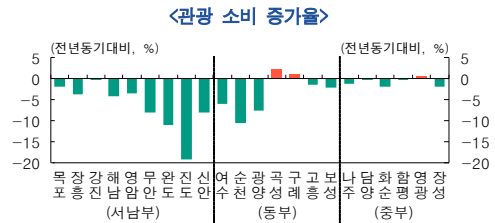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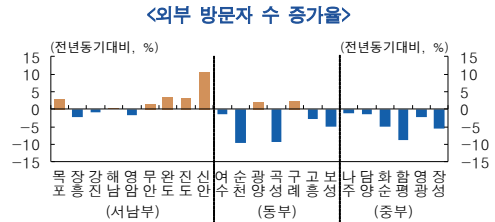
주: 1)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동통신사(KT), 신용카드(BC카드, 신한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된 자료를 활용
2) 계절요인(명절, 휴가철 등)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직전 12개월 동안의 평균 값을 이용하였으며 2018년 수치를 100으로 지수화
자료: 한국관광공사, 저자 계산

최근 전남지역 관광업 동향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1~10월중 외부에서 유입된 관광객 수는 동부권과 중부권은 대체로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으나, 서남권은 증가하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동 기간중 관광 소비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전남지역의 관광 소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는 고물가·고금리, 내수경기 부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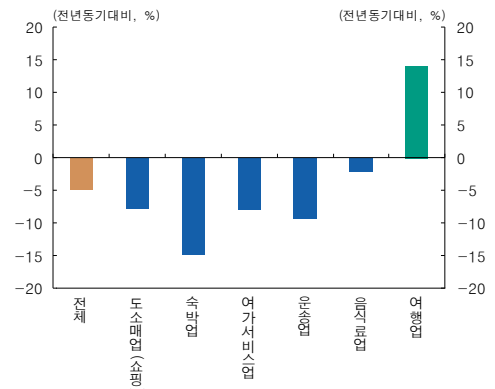
으로 국내 관광객의 소비패턴이 “짧고 저렴하게”로 변화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와 같은 소비패턴 변화에 민감한 도소매(쇼핑), 숙박, 여가, 운송, 음식료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소비가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남 시·군별 외부 관광객 수 및 관광 소비 증가율¹⁾²⁾



주: 1)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동통신사(KT), 신용카드(BC카드, 신한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된 자료를 활용
2) 2024년 1-10월 기준
자료: 한국관광공사

업종별 전남지역 관광 소비 증가율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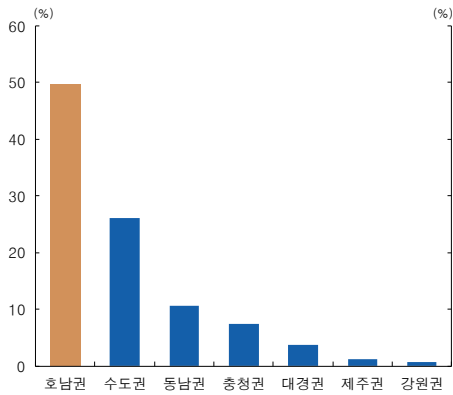


주: 1) 한국관광공사에서 신용카드(BC카드, 신한카드) 데이터를 이용해 추정된 자료를 활용
2) 2024년 1-10월 기준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편 전남지역 관광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유입경로 다변화,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청년층의 관광수요 창출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전남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절반은 호남권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향후 관광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호남권 이외 지역과 해외 등에서 유입되는 관광객이 계속해서 늘어날 필요가 있다. 이에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주요 관광지로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1)

전남지역 관광객의 유입지역 분포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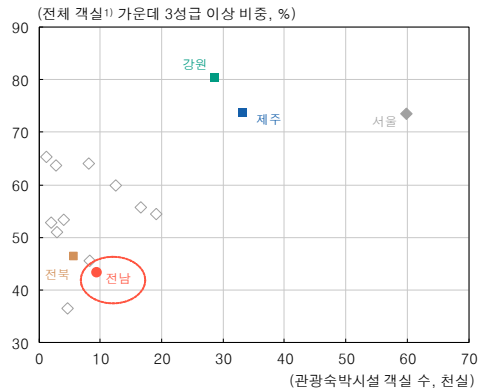


주: 1) 이동통신 데이터를 이용해 추정(한국관광공사)
2) 2023년중 외지 방문객 기준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편 전남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숙박비율은 제주, 강원 등 국내 주요 관광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2) 이는 전남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광기간이 짧아 전남지역의 관광객 수 증가가 이 지역에서의 음식·숙박 등에 대한 충분한 소비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양질의 숙박 시설을 확충하고, 관광객의 선호도 변화 등을 고려해 숙박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요 관광지역 간 연계교통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도 요구된다.

1) 현재 전라남도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등을 통해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통한 해외 관광객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2023년중 지역별 관광객 숙박비율은 제주 49.5%, 강원 36.9%, 전북 25.6%, 전남 24.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관광숙박시설 현황(2023년말 현재)



주: 1) 관광호텔업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마지막으로 전남지역 관광객의 연령대를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전남지역 관광객은 50대 이상 비중이 높고 20~30대의 비중은 낮은 모습이다. 향후 전남지역 관광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에게도 전남지역 관광에 대한 매력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여행 콘텐츠를 개발하고 SNS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외지 방문객의 연령대별 분포¹⁾

지역	연령대 (%)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남	7.6	16.9	14.8	16.3	21.0	23.4
전북	8.6	19.7	15.5	16.1	19.1	20.9
강원	8.9	19.6	16.5	17.0	17.8	20.2
제주	9.1	20.5	19.3	17.1	17.4	16.7

주: 1) 이동통신 데이터를 이용해 추정(한국관광공사), 2023년 기준
자료: 한국관광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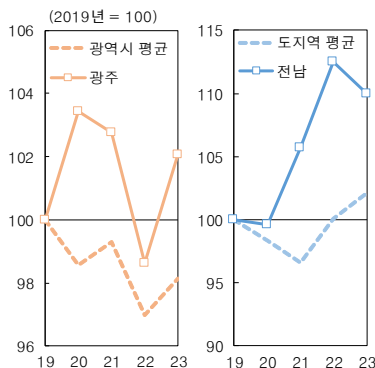
광주·전남지역 자영업 경영여건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자료는 한국은행 목포본부 안중섭 과장, 김민수 조사역, 광주전남본부 선진산 과장이 작성한 보고서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24.12)에 수록된 원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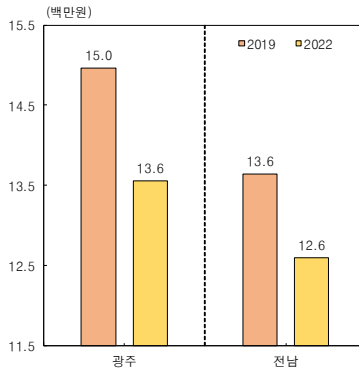
【최근 광주·전남지역 자영업 현황】

- **(자영업자 수 증가)** 2023년 광주와 전남의 자영업자는 2019년 대비 각각 2.1%, 10.0% 증가하였다. 광주와 전남의 자영업자 수 증가율은 각각 광역시(-1.9%)와 도지역(2.1%)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영업자의 고령화)** 자영업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상승하였다. 광주는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이 광역시 평균 수준이었으나,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고령층 비중은 두 지역 모두에서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았다.
- **(자영업 규모 영세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체 비중이 늘어나고, 사업소득이 감소하는 등 자영업의 영세화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자영업체의 평균 사업소득 증가율이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소득 증가율을 하회하였다.
- **(업황회복 부진)** 광주·전남지역의 자영업은 타지역 대비 업황 회복이 부진해 폐업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광주는 폐업공제금 수령 건수가 2019년 대비 60.5% 증가하면서 광역시 평균(+45.7%)을 상회하였다. 같은 기간 전남 폐업공제금 수령 건수는 115.4%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모습을 보였다.
- **(자영업 부채 증가)** 2023년 광주와 전남 자영업자 부채는 2019년 대비 각각 65.4%, 58.3% 증가하였다. 자영업자들은 부채의 상당 부분을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소득 수준별로는 중·저소득 차주를 중심으로 자영업 부채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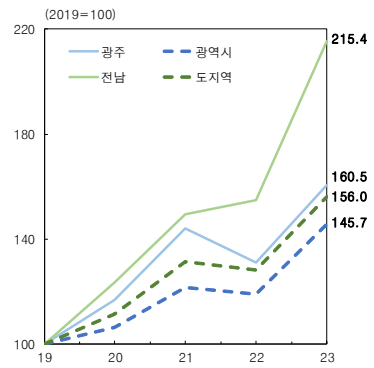
자영업자 수 추이



자영업체당 사업소득 변화



폐업공제금 수령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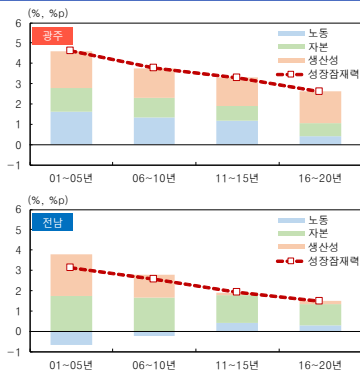
【광주·전남지역 자영업 경영여건】

① 수요기반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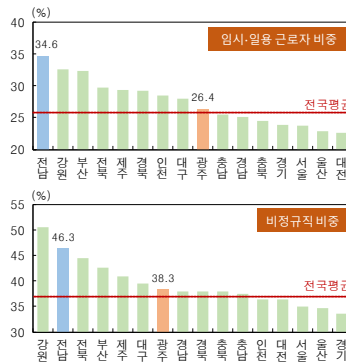
- (성장둔화와 고용여건 악화, 근로소득 유출) 광주·전남지역 성장둔화는 임금근로 일자리 창출여력을 약화시켜 자영업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타지역 대비 고용안정성이 낮은 점도 자영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기반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한편,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소득유출도 자영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기반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다. 특히 전남은 근로소득 상당부분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여건 등에 따라 전남지역 취업자의 상당수가 타지역에서 통근하는 데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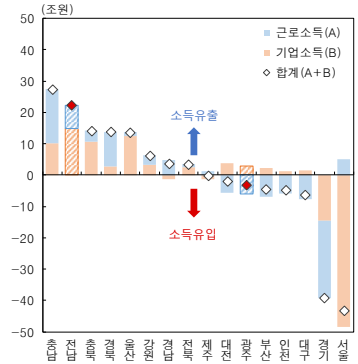
광주·전남지역 성장잠재력 및 요인별 기여도 추정결과



지역별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와 근로형태(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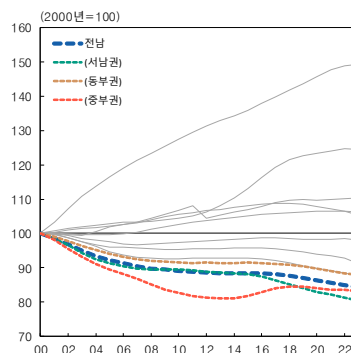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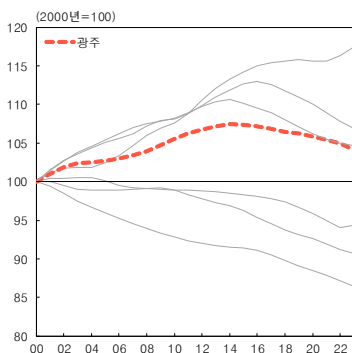
지역별 근로소득 및 기업소득 유출입 규모 추정결과(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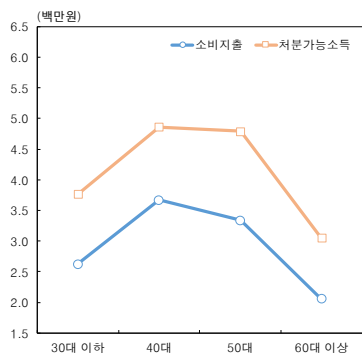
- (인구 감소[양적 측면]와 고령화[질적 측면]) 광주·전남지역 인구 감소로 총소비 규모가 줄어들어 따라 자영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또한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소비감소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고령층은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소득과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모습이다. 또한 이들은 생활에 필수적인 품목 이외에는 소비지출 규모가 크지 않아 상당수 자영업자의 수요기반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 전체 인구규모 추이 (특별·광역시)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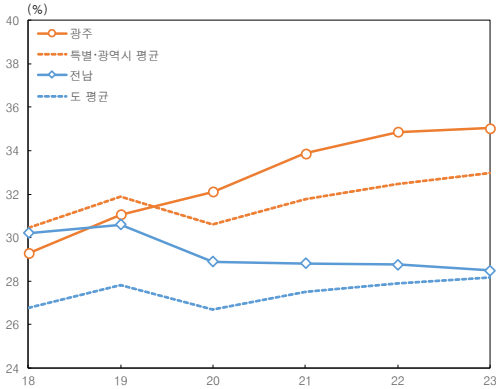


2023년중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및 소비지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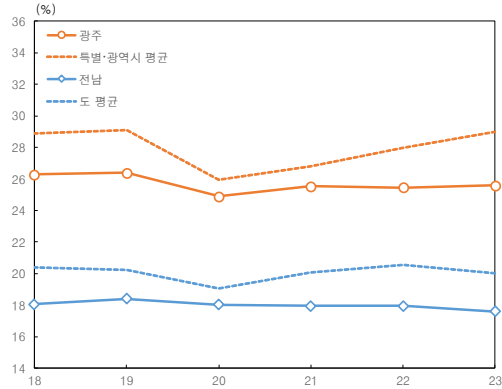


- **(높은 역외 소비유출률 및 낮은 역내 소비유입률)** 광주·전남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소비의 역외 유출률은 높은 반면 역내 유입률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광주지역의 소비유출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는 전자상거래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소재 자영업자의 전자상거래 이용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역외유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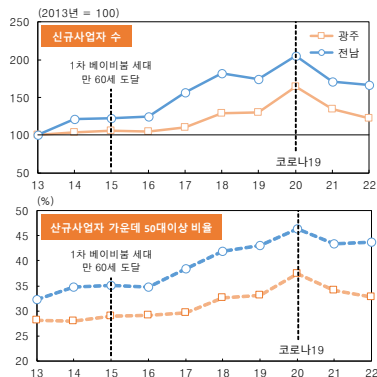
소비 역내유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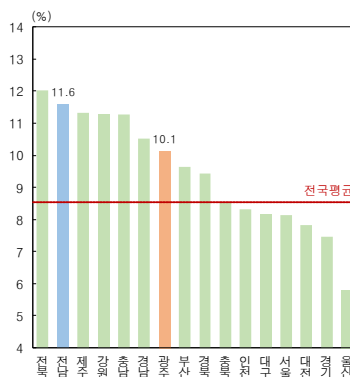
② 자영업 진입 확대

- **(베이비붐 세대 퇴직)**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상당수가 퇴직 이후 자영업에 진입한 가운데 2차 베이비붐 세대(1964년~1974년생)의 정년퇴직 시점이 다가오면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자영업 진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50대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가 열악한 소득여건에도 불구하고 폐업률이 낮았다. 이는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 업종변경 등 출구전략이 부재하고 폐업에 따른 비용부담이 높은 데 기인한다.
- **(청년고용 부진 장기화)** 광주·전남지역은 청년고용 부진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의 자영업 진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광주·전남지역은 청년 취업자 가운데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고, 20~30대 개인사업자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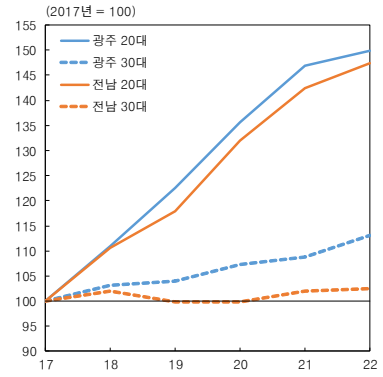
50대 이상 개인사업자 신규등록 추이



청년층 취업자 가운데 비임금근로자 비중



청년층 개인사업자 수 추이



【정책적 시사점】

-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소득·소비 유출 완화)**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층의 지역 잔류를 유도함으로써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소비기반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의료, 교통,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전자상거래 활용 제고 및 관광소비 유입 활성화)** 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 이용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유통 플랫폼 이용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역외수요가 지역 내로 유입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소비지출 규모가 큰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창업교육 및 폐업지원을 통한 과잉경쟁 완화)** 업종, 입지선정, 경영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자영업으로의 과잉진입을 완화하고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창업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자영업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유도하고, 업종전환 및 폐업과정에서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중·고령층 재취업 지원을 통한 자영업 진입 완화 유도)** 중·고령층 퇴직자들이 계속해서 임금근로자로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문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중·고령층 채용 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등 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